

# <별첨자료 1>

## 대통령 면담시 제출한 수배해제에 관련한 우리의 입장

○ 어려운 국사를 보살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숨죽이며 지켜왔던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결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수배자들이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수배가 풀려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돌아갈 꿈에 부풀어 2-3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13특사때도, 8.15특사때도 수배자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님께서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법을 지킬 의사가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면 양심수를 석방하겠다고 작년 대선 때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수배자들도 예외 없이 양심수기 때문에 응당 수배 해제 조치를 기대했습니다.

○ 양심수 석방의 조건인 준법서약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또 다른 억압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준법서약서를 양심수에게 쓰라는 것은 양심수들이 그동안 철폐를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라는 서약서에 다름 없는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해방 이후 독재정권은 부정 부패 비리의 온상이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나쁜 제도들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정치 수배자, 양심수는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독재정권 잔재는 청산해야 합니다. 헌법에도 보장된 정치·사상·표현·인론·출판·결사·행동의 자유를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학살자, 부정축재자인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도 풀려 난 마당에 사회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워왔던 학생들의 수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국민대화합은 온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권력을 지닌 부도덕한 사람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을 위한 정치, 서민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님인 만큼 과거 정권의 정치수배조치를 과감히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법무부의 입장은 김영삼정권 때와 다르지 않은 고압적인 수구 공안논리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죄인 취급하며 양심수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자세여서

이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 저희들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정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수배가 풀린다면 양심에 따라 올바른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 한총련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정부다운 판단을 요구합니다. 분명, 한총련은 폭력·이적단체가 아닙니다. 한총련이 학우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투쟁방법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별첨자료 2>

###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부의 대화 경과 보고

본 농성단은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의 차원에서 구 정권하의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총 66명)들의 수배조치를 지혜롭게 해결해보고자 명망 있는 사회인사들로 구성된 '수배해제 대책위<sup>2)</sup>'를 구성하여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관계자(한화갑, 정균환,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박영관 검찰3과장 등)와 수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일에는 유가협(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이 준비한 자료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수배자 부모님들의 친필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유시춘,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와 수 차례의 논의를 진행
-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 면담(8월 12일)
- 법무부를 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수배자 부모님 탄원서 제출

2) 대책위원: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의장), 함세웅 신부님(천주교인권위원회), 홍근수 목사님(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성근 목사님, 이덕우 변호사님  
 대책위 집행위원: 오영식(선대협 2기 의장, 선대협 동우회 회장), 김재용(한총련 1기 의장)

- 대책위 분들이 박상천 법무부장관, 이기문(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원을 면담하여 법무부 입장을 확인(9월 18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이기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 담당 공안 검사의 만남을 통해 우리 농성자들에게 통보된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진출두 하여 수사를 받을 것
- 2) 반성을 전제로 하여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수배해제 이후 한총련 일에 개입하지 말 것
- 3) 국법질서를 준수할 것
- 4) 2),3)의 내용을 형식에 상관없이 표명할 것
- 5) 위의 사람 중에 죄목에 따라 선별처리 한다. 선별처리 기준은 한총련 이외의 조직사건 관련자, 이적 표현물 배포 관여자, 폭력시위 관련자, 그러나 선별처리 기준은 유동적으로 협의 할 수 있다.

- 대책위, 수가협('김영산 전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약칭) 분들이 한화갑(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이기문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화갑 원내총무는 수배해제의 문제를 당내에서 토론에 부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주례 보고하겠다고 함(10월 16일)

- 유가협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나의 활동과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고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던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한 답신을 주겠다고 함(10월 20일)

### <별첨자료 3>

## 김영삼 정권시절의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

총 66명(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지역

유병문·김명희(동국대) 배정기(경희대) 송현서(한양대) 이창희(단국대) 양승미(상명대) 김희정(경기대) 공은희(덕성여대) 최선희(성신여대) 류순·신창현(고려대) 김효재(서강대) 엽동렬·최원석·김낙환·김영란·방기형(건국대) 신동훈

#### ▲ 경기인천 지역

김현곤·김재돈·이영수(서울농대) 홍창훈·이경수·홍춘호(인천대) 신은경·박대성·이미선·전현욱·한유진(경원대) 이병언(경희대) 박재철·김대성(외대) 공혁준(강남대) 김승호(인하대)

#### ▲ 광주전남 지역

오창규·진재영·김성숙(전남대) 최태진·윤민호·고겸·서일권(조선대) 유영업(목포대) 송성주·고재한·장귀영·김은정(동신대) 송승훈(목포전문대) 김용환(순천대)

#### ▲ 부산경남 지역

정재원·최현석(동아대) 손해연(울산대) 박준형(경남대) 윤용웅(인제대) 이장인(동명전문대) 이현주(부산여전) 김민임(창원대) 윤동영(경상대)

#### ▲ 대구경북 지역

이성훈·이대동·최윤진·권륜영(경북대) 이윤구(경산대)

#### ▲ 충청지역

노형일(한남대) 이재춘(충남대) 송용한(고대) 김혜란(청주대)

| 인권 자료실 |      |      |
|--------|------|------|
|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번호 |
|        | B8   | 164  |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32-6880~1 / FAX 582-4178

문서번호: 98-5-8

시행일자: 1998. 12. 8

수 신: 각계 인권·사회단체

제 목: 당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추진과 공동건의안에 대하여

1. 조국과 민중을 위해 연말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저희는 세계인권선언 50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문제해결과 청년양심수 군 문제해결 및 조건없는 양심수 특별대사면추구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상근 목사님과 이창복 대표님, 홍근수 목사님, 함세웅 신부님, 권오현 의장님, 오종렬 아버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서 개별적 인권사안만이 아닌 전체 인권 문제를 갖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고견을 모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마땅히 동의하며, 유가협, 민가협, 민권공대위, 인권법공추위 등에 조금이나마 의견을 물어 '당면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요구안과 대통령 면담건의서에서 9인의 재야어른신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3.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요구안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반드시 공동요구안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4. 당면 인권 공동요구안은 청와대에 접수시킨 대통령님과의 면담건의서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통령 면담대표단은 민주개혁국민연합 김상근, 이창복 공동대표, 통일시대 국민회의 함세웅 공동대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연합 권오현 공동의장,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오종렬 공동대표 등 5인으로 하였습니다.

5. 당면 인권문제 전반을 풀고자하는 대통령과의 면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  
(오창규, 김현곤, 유병문, 이영수, 김계돈, 김성숙, 홍춘호, 엽동련, 이창희)

<별첨자료>

## 당면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건의안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해 살아온 모든 이들의 인권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당면한 인권 현안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의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건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준법서약서를 철회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주시길 바랍니다.
3.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를 비롯한 모든 정치수배자의 해제를 촉구합니다.
4. 청년 양심수의 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출소한 양심수에 대한 보안관찰법을 철폐해 주시길 바랍니다.
6.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폐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인권탄압의 본질적, 법적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개혁 국민연합 김상근, 이창복 공동대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정숙 상임대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홍근수 상임대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연합 권오현 공동의장**

**통일시대국민회의 함세웅 상임대표/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문 김승훈 신부님**

**불교 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오종렬 공동대표**

|        |      |      |
|--------|------|------|
| 인권 자료실 |      |      |
|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번호 |
|        | B8   | 169  |

## 조건없는 정치수배 해제 ! 양심수 전원석방 !

# 정 치 수 배 해 제



10월 16일 조계사에서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 가슴이픈 일이 진행되었다.

국가를 거덜 낸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수배자가족협의회>결성식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가 시민단체, 노동자, 학생과 수배자 가족의 참여가 있는 가운데 있었다.

식발식과 함께 진행된 결의문을 낭독에 앞서 낭독자는 "우리는 지금 죄 없는 사람들의 식발을 보고 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가슴이 터지는 심경을 밝혔다.

■ 주 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내

■ 전 화  
732-6880~1, 017-205-8518

■ Internet Homepage  
http://  
myhome.netsgo.com/iso92

■ PC통신 ID  
천리안: ncy93  
나우·참세상: 수배해제  
Email: free08@nownuri.net

### 11월 2일을 시작으로 한겨레신문 연속광고에 동참합시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11월, 12월 다가올 인권정국에서 주동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정치수배 해제의 요구들을 공론화시켜 내고 모두가 한뜻으로 외칩시다!  
그 일환으로 각 단위가 11월 2일부터 한겨레신문에 연속광고를 게재하도록 합시다!

<< 신문광고 예 >>

정치수배 해제, 국가보안법 폐쇄, 양심수 석방을 위한 연속광고 ①

----- (각 단위 요구와 입장등을 담은 문구) -----

##각 단위의 명의##

## 가장 작은 크기 (이것을 기본크기로) ##

● 크기 : 가로 4.5 Cm X 세로 1 Cm

● 가격 : 55,000원

11월 2일을 기점으로 조계사농성단이 첫번째 광고를 게재하면서 연속광고를 시작합니다. 이후 12월까지 계속 게재합니다.  
연속광고에 동참하실 단위는 조계사농성단으로 연락바랍니다.

# 조건없는 정치수배 해제, 국민의 정부 가는 지름길!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군문제 해결, 한총련의 합법화와 대중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5가지 요구를 내걸고 조계사 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80일이 지나 100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 후원회 대책위 등을 꾸려 서명운동과 선전활동, 주점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미 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교수님, 총장님들이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수배해제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방문하여 격려와 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부모님들도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셔서 당신들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 사회단체들이 지지방문과 서명, 탄원작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8월22일, 9월13일 집회와 문화제를 감동적으로 진행하고 10월 16일 수가협 결성과 결의대회를 힘있게 진행하며 수배해제의 절실'정당성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간지, 월간지, 대학신문 등에 널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통신 공간에서도 수배해

제를 위한 농성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와 동창이 앞겠다는 자세입니다.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운동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행정부, 그것도 개 관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의 정당성은 이미 사회 각계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이런 고압적이고 보수 수구적인 공안논

3대 종교의 대표적인 민주인사들과 변호사 등으로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한데 대해 분노를 금구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인권위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나라를 망친 김영 장, 사무총장, 권한대행, 원내총무 등을 만나서 우리 독단과 부정부패에 저항하다 수배된 우리 수배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들을 죄인 취급하며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 선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배해제의 업무 부수 있다는 전형적인 공안수구 논리입니다. 법무부와 담당 검사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 위해 길게는 6년 짧게 1년 이상을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수 배생활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굴복 한 입장은 너무나 고압적인 내용이었습니. 가겠다는 공안논리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하여 수사를 받을 것, 반성을 전제로 하여 한총련 국민들의 과거청산과 인권신장, 개혁의 열망에 탈퇴 내지는 개입하지 않을 것과 국법질서를 존중 현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압적인 요 할 것을 천명할 것, 이렇게 하면 조직사건 관련자 구에 절대 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와 이적 표현물 배포 관여자, 폭력시위 관련자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안수구 세력과 그 논 제외하고 선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가소 리 역사의 퇴물을 청산하고 민주 개혁의 전진 중지자 자수기간에 자수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선별조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죄 전히 죄인 취급하며 양심수의 범주에 포함시키

## 수/배/해/제

### <농성단의 요구사항과 입장>

1. 정치수배 해제
2. 양심수 군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 마련
3.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
4.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 규정철폐, 탄압 중단
5. 국가보안법 철폐

### 양수리에서



시원시원

### 유병문 시집 [ 양수리에서 ]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3년째 수배 중

동국대 한 조국통일의 길, 그리고 3년여의 수배생  
과 지난은 삶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 활 / 동 / 보 / 고

- 4월 전남대에서 정치수배 해제 모임 결성. 서명·탄원서·모금활동
- 8월 9일 조계사에서 7명의 시국관련 수배자들이 농성 시작
- 12일 진관스님, 권오현 민가협위원장, 홍근수목사, 오종렬 전 광전연합회장 등이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화갑 총무, 검찰청장 면담
- 8.15 특별사면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 22일 전국연합, 민가협 등 300여명이 참가한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결의대회'를 조계사에서 진행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108배 용맹정진 시작
- 9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사네 방한단이 농성단을 방문해 수배해제, 양심수석방의 지지서명과 환담을 가짐
- 9월 13일 사회단체 인사들과 700여명의 청년학생, 노동자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개최
- 10만인 서명운동을 목표로 전국의 각 대학과 거리에서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10월 20일) 4만여명.
- 친지 가족들을 비롯하여 명망있는 사회인사와 교수님들로부터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운동 진행.
- 수배자 부모님들이 법무부 항의방문,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 면담에서 당내토론을 확대 받음,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벌임.
- 10월 16일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식과 민권공대위 주최로 민중생존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 농성단 삭발로 현정부의 기만성을 알리고 결의를 다짐
- 10월 20일 유가협 대통령 면담시 농성단 활동자료 전달
- 11월 15일 조계사에서  
**"일할 자유! 양심의 자유!"**  
를 위한 문화제 준비 중.



|      |    |     |
|------|----|-----|
| 등록번호 | 88 | 157 |
|------|----|-----|

# 저 막내 아들을 이 어머니의 품으로 ...

김대중 대통령님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IMF라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다 고생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군인들이 정치를 할 때는 국민들이 재 할 말을 못하고 어쩌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혀가서 죽어서 돌아오거나 반 병신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들을 60평생을 살면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수배자가 되어 몇 년을 얼굴 한 번 못보고 보냈습니다. 제 아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렵게 겨우 집에 들어와서 쉬쉬해가면서 상을 치렀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보낸 내 막내 아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송편하나 제대로 못 먹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먹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나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우리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옳은 소리 한번 한다고 해서 수배자가 되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한데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부디 저희 막내 아들 김현곤, 올해는 이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수배생활을 청산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정치 생활을 하셔서 수배되

어 있는 아들을 둔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도 모두 다 감옥에서 나오고 국민의 세금 몇 백억을 가로 찬 사람들도 다 사면되는데 제 아들은 대학생활 하면서 옳은 소리 몇번 한 죄밖에 없습니다. 부디 수배를 풀어주세요.

관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히 나라 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배자 김현곤(서울 농대 87) 어머니 장희수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10월 23일 조계사

양군모 무기한 농성 돌입!!!

- ▶ 병무청·국방부는 양군모에 대한 강제징집 납발 중단하라!
- ▶ 수배·감옥 다시 군대로, 장기적 사회격리 중단하고 양심수에 대한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하라!

### [ 수·배·자·가·족·협·의·회 ]

정치수배를 받아 억울하게 탄압받는 자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1.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모든 노력
2.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 적극 후원
3. 수배자들의 수배사유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을 전개
4. 경찰과 수사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 대응
5. 수배해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
6. 수배자 가족들간 위로와 친교활동
7. 국가 보안법 철폐·준법서약제도 폐지 운동 전개
8.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연대투쟁

공동대표 : 유철근·오종렬·이형숙·장재욱

고재영 공문규 김강호 김다전 김연근 김지욱 김형규 노근식 박관순 박형용 방한덕 배근조 송경관 송길택 송순섭 손춘덕 신용문 신영철 엽양기 유태종 윤병연 윤지운 윤진남 이국진 이근자 이원호 이의광 이종택 장희숙 정종찬 정 화 진지연 최남식 최입학 최무웅 최태구 홍덕수

## 양심수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단식을 마치며

양심수 석방·정치 수배 해제·양심수 군문제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단식을 12월 5일 시작해 12일 마친다. 찬바람 부는 12월, 수 많은 인권행사와 정치적 계기가 집중된 12월을 맞아 우리 공동 단식단은 결사적인 단식투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호소했다.

11월말에서 12월 12일 사이에 양심수가 갇혀있는 전국의 거의 모든 교도소에서 단식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병동성당에서는 40여명의 한총련 난식단이 12월5일에서 12월12일까지 난전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패기있는 투쟁을 전개했다. 조계사에서 12월5일부터 12일까지 수배자들과 양심수 군문제관련자들 19명이 절도있고 외연한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단식투쟁에 각계의 지지와 호응이 확인되었다. 전국연합과 민권공대위 어르신들의 지지단식, 농성이 이어졌고 민기협 어머니들은 거리 캠페인으로 화답해 나섰다. 그리고 수배자 가족들이 생계를 뒤로 하고 12월6일부터 12일까지 농성을 전개하며 각 정당과 언론사에 양심수 문제 해결을 호소해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도, 실효성있는 인권기구 설립도 없이 12월 10일 공허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고통받는 양심수의 현실에는 눈을 감아 버리고 절절한 단식투쟁의 호소의 국민적 목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렸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기념식에서 인권개선 원황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작년 97년보다 98년 올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5% 줄었다고 자랑까지 늘어놓았다. 김영삼 집권말기 발아적인 공안탄압하에서의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정권교체이후 집권초기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더구나 93년 김영삼 정권초기 1년 농안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보다 98년 김대중정부 8개월농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4.6배나 증가했다는 놀라운 사실은 왜말하지 않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위정자의 숫자늘음으로 현재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호도하시 말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 없듯이 현재의 심각한 양심수문제, 국가보안법에 의한 단압 현실을 덮어 버릴수 없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과거 위정자들과 똑같이 양심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면서 국민들을 속인다면 머지않아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 국가보안법 철폐의 국민적 요구는 인권대통령을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결코 비켜가거나 미룰수 없는 과제임을 명심하라. 김대중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용단을 내리고 과감한 특별사면조치를 발표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조계사 농성단은 절절한 단식호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양심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이 12월달을 어물쩍 넘어 가려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준엄한 규탄의목소리를 높인다. 이후 결연한 의지로 투쟁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릴 것이다.

1998년 12월 15일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청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창규 문지웅 732-6880, 1)

| 인권 자료실 |      |      |
|--------|------|------|
| 일련번호   | 분류기호 | 자료번호 |
|        | B8   | 209  |

#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우 110-170 서울 송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전화 732-6880 / FAX 723-9120

문서번호: 농성단 제 99-2-24

시행일자: 1999. 2. 24

수 신: 각 사회단체

제 목: 2월 22일 대통령 취임1주년 사면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서 발표 요청과 목요집회 참가 요청서

요청서

1.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해결에 항상 매진하시는 귀 단체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저희 농성단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199일째 이릅니다. 지난 22일(월) 대통령 1주년 사면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구정권시절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에 있어서는 '선별처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희는 25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있을 목요집회에 참여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양심수 전면 식방과 전면적인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단체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문제가 크게 사회 여론화되고, 정치권에도 반영되어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 문제가 이번 3.1절 사면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검찰 실무당국도 기자회견의 문구표현에 신경쓰지 말고 검찰로 출두하여 준법서약서나 한총련탈퇴서, 반성문 등을 쓰지 않아도 수배문제를 정리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 상황이며, 오랜 저희 투쟁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수배문제 정리에 있어 검찰 실무자들은 여전히 전원에 대한 수배해제가 아닌 '조사에 따라 기소여부를 판단하며, 몇 명의 구속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저희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유예보장이 없는 수배해제" 운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진정한 수배해제가 있다면, 실무자들의 잘못된 입장을 옳게 정리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원에 대한 수배해제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4. 농성단의 난식투쟁이 오늘로 4일째 이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정치수배 해제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별첨자료 : 1. '법무부 발표 사면관련 기자회견문 수배자 관련부분

2. 국민회의, 법무부와의 대화 관련 보고서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김현곤, 이창희, 엽등렬, 김성숙, 한유진, 김대성, 유병문, 홍준호)

<별첨자료1>

수배해제관련 법무부 기자회견문 내용

원문에서 부분발췌

5. 「준법서약」을 한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

○ 「준법서약」을 한 공안 및 공안관련 사범 29명중 24명을 석방하고, 죄질이 중한 5명을 감형함  
- 이들은 한총련 등의 집요한 「준법서약 거부운동」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지킬 것을 약속함에 따라 석방 또는 감형 조치함.

○ 이번 조치 대상 주요 공안 사범은 아래와 같음.

- ▲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고영복 전 서울대교수는 이미 1년 6월을 복역하였고, 70세의 고령이며, 고혈압·뇌졸중 등 지병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집행정지로 석방
- ▲ 수감중인 중부지역당 관련자 3명 중 장창화는 석방, 최호경은 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 ▲ 연세대 친북난동사건 관련자 설중호 등 한총련 관련자 17명 석방, 죄질이 중한 4명은 감형
- ▲ 밀입북 기도사범 김민성 등 4명 석방
- ▲ 노동사범 중 만도기계 노조위원장 황성근은 노사화합 도모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 (나머지 노동사범은 재판계류중이고, 형확정된 자 없음)

○ 다만,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의 강용주, 재일조총련 관련 간첩사건의 조상득은 준법서약과 관계없이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기로 하였음.

- 강용주는,

- ▲ 주범인 양동화, 김성만 등이 준법서약을 하고 지난 8.15사면시 이미 출소하여 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 ▲ 형기의 상당부분을 복역한 점(징역 20년의 형기중 12년 복역)
- ▲ 국내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석방청원이 쇄도한 점 등이 고려되었으며,

-조상득은,

- ▲ 남파간첩이 아닌 자 중 최장기수인 점(무기징역의 형기중 20년 복역)
- ▲ 국내외 인권단체의 석방요청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전 공안사건으로 지명 수배중인 자들에 대한 방침을 말하겠음.

- 정부는 수배중인 공안사범들이 자수하여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것임.

-밀줄친부분 정치수배자 관련-

<별첨자료2>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부의 대화 경과 보고**

본 농성단은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의 차원에서 구 정권하의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 (총 64명)들의 수배조치를 지혜롭게 해결해보고자 명망 있는 사회인사들로 구성된 '수배해제 대책위1)'를 구성하여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관계자(한화갑, 정균환,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박영관 검찰3과장 등)와 수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유가협(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이 준비한 자료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수배자 부모님들의 친필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유시준,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와 수 차례의 논의를 진행
-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 면담(98년 8월 12일)
- 법무부를 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 대통령께 드리는 수배자 부모님 탄원서 제출
- 대책위 분들이 박상천 법무부장관, 이기문(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원을 면담하여  
법무부 입장을 확인(98년 9월 18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이기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 담당 공안 검사의 만남을 통해 우리 농성자들에게 통보된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신출두 하여 수사를 받을 것
- 2) 반성을 전제로 하여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수배해제 이후 한총련 일에 개입하지 말 것
- 3) 국법질서를 준수할 것
- 4) 2),3)의 내용을 형식에 상관없이 표명할 것
- 5) 위의 사람 중에 죄목에 따라 신별처리 한다. 신별처리 기준은 한총련 이외의 조직사건 관련자, 이적표현물 배포 관여자, 폭력시위 관련자, 그러나 선별처리 기준은 유동적으로 협의 할 수 있다.

1) 대책위원;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의장), 함세웅 신부님(천주교인권위원회), 홍근수 목사님(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님(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이덕우 변호사님  
대책위 집행위원; 오영식(전대협 2기 의장, 전대협 동우회 회장), 김재용(한총련 1기 의장)

- 대책위, 수가협('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약칭) 분들이 한화갑(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이기문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화갑 원내총무는 수배해제의 문제를 당내에서 토론에 부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주례 보고하겠다고 함(98년 10월 16일)
- 유가협이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의 활동과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고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던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한 답신을 주겠다고 함(98년 10월 20일)
- 진형구 공안부장과 공안기획 3과장과 진관스님, 김재용(하총련1기 의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진행(98년 11월 27일)

**공안부의 입장**

'법의 원칙, 번적용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의 법적 기준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심단적인 형태보다도 개인적으로 출두하여 '준법의시를 밝히는 등 수사에 성의를 보인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함.

☛ 농성단의 입장 : 공안부 입장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자체 판단함

- 12월 둘째주 수차례에 걸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국민회의 방문시의 약속사항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 농성단 방문 (12월 18일), 농성단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짐. 국민회의의 종전입장 전달, 하지만 공안부와 직접 만나는 토론자리들 주선하겠다고 약속함.
- 12월 말 공안부와의 직접대화추진이 결렬. 공안부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과의 직접대화를 거절한다고 전함.
- 1월 13일 국민회의 제 1정책조종위원장 남궁진 의원과 수가협, 민가협 대표님들과 면담진행. 당징협의에서 적극 수배해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함.
- 1월 23일 대통령님과 민가협 오찬사리에 조계사 농성단 오찬규 나장의 어머니가 참석.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건의드림. 김대중 대통령님의 '3.1절 사면시사' 발언 언론에 공개됨.

- 1월 24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방문, 1월 26일 국민회의 인권국장 방문 (현재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의 명단의 파악해감)
  - 1월 27일 국민회의가 주례보고자리에서 대통령에게 3.1절 대사면 건의 ( 양심수와 한총련 관련 수배자의 사면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를 포함).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적극 수용의사 표명.
  - 1월 28일 법무부실무자인 3과장 박영관 부장검사가 오종렬 아버지, 오영식, 김재용 집행위원과의 면담을 이유없이 결렬시킴. (이후 전화로 조건 없는 자수를 이야기 함.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담하지 않겠다고 함)
  - 1월 29일 민가협, 수가협, 한하협 부모님들의 국민회의 방문.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만남. (조건없는 양심수 대사면에 대해 재촉구, 준법서야서제도에 대해 항의함)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여 법무부와의 조율이 남아있다고 함. 이날 이기문 인권위원장은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해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함. 국민회의 인권국장은 지금의 수배해제란 '수배자가 쉬참함에 가서 가난한 절차를 치루고 기소유예를 받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며, 가난한 수사 등의 절차진행도중 몇 사람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수배해제가 아니냐"라고 함.(하지만, 국민회의의 수배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 안됨)
  - 따라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저희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찰운영을 포함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박상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 수가협 부모님들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서관을 통해 면담 주신을 약속받음.(2월 2일)
- 민가협 권오현의장님과 수가협 부모님들이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과 만남 (구 정권 하의 수배자에 대해 조건없이 전원 불구속 기속유예로 수배조치를 해제시키겠다고 약속받음. 당 간부회의를 거쳐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3.1절 특별사면과 수배해제조치'에 대한 최종주례보고를 통해 법무부에 이야기하겠다고 함. 법무부장관과의 만남도 최대한 주신하겠다고함.(2월 3일)
- 수가협 부모님들이 2월 9일 당정회의 전에 국민회의 정책위원장 김원길 의원사무실, 남궁진 의원사무실, 이기문 의원사무실, 자민련 정책위원장 차수명 의원사무실, 김종학 의원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협조를 구함.

- 2월 9일 당정회의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2월 11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해 '조건없는 전면 수배해제'로 대통령께 주례보고로 올림. 이 날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재하의 청와대, 법무부, 인권 및 사회단체의 간담회에 수가협 공동대표 장재욱 이머님이 참가한 자리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함.
- 2월 20일 법무부 검찰3과장 박영관 검사와 수가협 부모님들이 면담을 진행함. 이속에서 박영관 검사로부터 2월 19일 법무부장관 업무보고자리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22일 취임 1주기 사면·복권 기자회견에 수배문제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음. 또한 구 정권 정치수배자들에 대해서 수배해제조건으로 준법서약서나 한총련 탈퇴서, 반성문 등의 형식을 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함. 하지만 간단한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하여 지속적인 선별처리입장을 확인함. 부모님들은 이에 대해 전원에게 대해 수배해제 해줄 것을 요청함.
- 2월 22일 법무부 장관이 수배문제를 포함한 3.1절 사면·복권 기자회견을 발표함.

**“새정부 출범전 공안사건으로 지명수배중인 자들에 대한 방침을 밝히겠음.**

- 정부는 수배중인 공안사범들이 자수하여 앞으로 법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임

2월 23일 조계사 농성단 비상대책위원이신 민가협 권오현 의장님과 박영관 검찰 3과장이 전화로 통화한 결과, “박영관 검사는 자수 등의 표현은 자기네들의 표현이니, 마음에 두지 말고 상관없이 검찰에 올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선별처리입장은 완강히 이야기 했음.”, 또한 이날 오후 조계사 농성단 대책위원이신 진관스님께서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한화갑 총무가 당론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어서 아무도 구속되지 않을테니, 마음놓고 자진출두할 것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 이 날 조계사내 수가협 귀중으로 법무부 공문이 올.  
공문은 박영관 검찰 3과장이 보낸 것임. 이에 수가협 부모님들이 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을 만나 내용의 진의를 확인하자, 이기문 인권위원장은 검찰과 통화를 나눈뒤 “과격적인 상황으로 수배해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몇 사람의 구속은 각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속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나서서 집행유예로 되

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함.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1. 사진출두 기간을 정하고
  2. 기간 내에 출두하는 수배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3. 출두자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방침을 내린다.
  4. 저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 소회를 밝힌다.
- “장기간의 수배, 도피 생활은 일상에 대한 갈망으로 접착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수배해제가 된다면 그러한 가족에게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학교생활로 돌아가 못 다한 학업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올바른 법이라면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 이러한 저희의 소회는 순수한 양심의 표현입니다. 저희들의 양심의 표현이 존법서약서를 쓴 것처럼 호도된 것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저희는 민주시민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살아갈 것입니다.”

1999년 4월 15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김태은 이종희 권유진 임동원 김정우 김대성 최영배 홍영배)  
 110-170 서울 조계로 110-170 조계사농성단 (전화: 02-398-1100)



|        |        |
|--------|--------|
| 인권 자료실 |        |
| 구분     | 호수     |
|        | B8 200 |

# 활동보고서

## ▶ 자료 순서 ◀

- 국제 사면위원회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서명
- 농성단 활동보고
- 농성단의 향후계획
- 농성자 명단 및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전원명단
- 대통령께 드리는 조계사 농성단의 입장
- <별첨자료 1>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 <별첨자료 2>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부와의 대화 경과 보고
- <별첨자료 3> 대통령 면담요구시 제출한 공동인권요구안
- <별첨자료 4> 관련기사 모음
- <별첨자료 5> 2월 26일 수가협 부모님 강제해산 관련 항의서
- <별첨자료 6> 3월 4일 조건없는 전원수배해제를 위한 사회인사 기자회견
- <별첨자료 7>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종 중앙종회 결의문

1999년 4월 15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김현곤 이창희 한유진 엽동렬 김성숙 김대성 유병문 홍춘호)

우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 전화 732-6880 / FAX 723-9120 / <http://myhome.netgo.com/free066>

9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도 농성단을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10/9/98

No one should be prosecuted and jailed for the non-violent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In solidarity with the students of South Korea who have struggled throughout the modern history of their country for democracy & human rights.



Pierre Sané  
 Secretary 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Handwritten signature)*

▶ 사진은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의 수배해제를 지지하는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왼쪽 사람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단장입니다.

▶ 오른쪽은 피에르 사네의 자필 서명서입니다.

### 1.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보고

98년 4월 1일 광주전남지역부터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98년 8월 9일 조계사에 전국 의 시국관련 수배자들이 조계사에 모여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성 250일째 (99년 4월 15일 현재)를 맞고 있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의 간략한 활동보고입니다.

1)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피에르사네), 스웨덴 집권당인 사민당산하 청년위원회 의장(앤더스 린드버그) 이 방한기간에 본 농성단을 찾아 정치수배해제·양심수석방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고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자필서명을 하였고,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명망있는 사회인사들이 탄원서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98년 11월 3일까지 '정치수배해제·양심수전원석방·양심수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4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2) '인권신장'과 '부정과 독단의 구시대적 정치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집회를 비롯한 제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국연합,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노동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98년 8월 22일)
- 사회단체 인사와 시민학생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98년 9월 13일)
- 전교조,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98년 10월 16일)
- '의문사 진상규명, 열사명예회복,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를 여의도 국회의의 당사앞에서 진행(98년 11월 21일)
- 양심수문제(김영삼정권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준법서약서 철회)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단식 진행(98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
- 대통령면담 대표단(김상근목사, 함세웅신부, 이창복의장, 오종렬의장, 홍근수목사, 권오현의장) 사전 모임을 가진(98년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봄(제반의 인권문제라 함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청년양심수 군문제 해결, 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대통령면담을 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입장을 모아 공동 인권요구안<sup>1)</sup>과 함께 면담건의서를 제출(98년 12월 8일)
-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선언운동 진행(98년 12월 9일자 한겨레 신문 하단광고로 나감)

1) 별첨자료 첨부 <내용: 대통령 면담요구서 제출한 공동인권요구안>

- 인권 및 민주단체의 어르신들 70여분과 '당면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송년오찬 및 다과회'를 가짐 (98년 12월 31일)
- 김영삼 전대통령 경제청문회 출두와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해제를 위한 상도동 김영삼 자택 진격투쟁 진행 (99년 1월 14일 농성단원 이영수, 김재돈 등이 상도터널 앞에서 5분여동안 진행하다 연행됨)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를 탑골공원에서 진행 (99년 1월 14일)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과 인권공대위와 신년 첫 공동인권연대투쟁으로 진행)
-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참여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한민전 영남위 대책위 등과 같이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구성 (99년 1월 28일), 1월 28일부터 매주 민가협 목요일집회를 상징적 인권투쟁으로 만들고, 다양한 시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함.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1차 인권대회를 종묘공원에서 각 사회단체와 학생 등 천여명이 참가하여 진행함 (99년 2월 6일)
- 구정을 맞아 민가협, 수가협 부모님들께 합동 세배를 드림(99년 2월 13일)
- 조건없는 수배해제와 양심수 대서면추구를 위한 공동연대단식을 전개함(99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 민권공대위에서 개최한 서울역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와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 민중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중대회'에 참가함 (99년 2월 21일)
-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연대회의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진행. 각계 어르신 70여분 참가함 (99년 2월 23일)
-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회 각계어르신(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님, 흥근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님, 권오한 민가협 의장님, 이창복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님 등)<sup>2)</sup>들이 참가하여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조건없는 전면수배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99년 3월 4일)
- 조계사 농성단과 수가협이 주최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연대집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함 (99년 3월 5일)
- 수가협, 민가협, 전국연합, 국보철 연대회의, 민권공대위 등이 주최하여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6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법무부앞 항의집회'를 전개함(99년 3월 12일)
- 조계사 농성단과 수가협이 주최하고, 민가협,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국보철 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게 자유의 봄을'이라는 내용의 인권 문화제가 천여명 넘게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림 (99년 3월 20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집행위원회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위한 변호인단을 꾸리

2)별첨자료 첨부 <내용: 조건없는 전원수배해제를 위한 사회인사 기자회견>

기로 결정함 (99년 3월 22일)

-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특별건의문<sup>3)</sup>을 채택함 (99년 3월 31일)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단(강내희, 곽노현, 오수성, 유초하, 장상환 교수님)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함 (99년 4월 1일)
- "정치수배해제를 거부하는公安검찰규탄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검찰청앞 집회"를 민가협, 수가협,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회원 40여명 등이 함께 하여 진행함 (99년 4월 13일)
- 3) 전국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탄원 운동, 선전활동, 각계 면담 등을 진행하는 등 수배자녀들(현재 구 정권하 수배자 총 60명<sup>4)</sup>)의 실질적인 수배해제를 위해서 제반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08배를 170여일째 진행(지금도 지속), 정치수배해제를 염원하는 3000배(98년 11월 24일)
  - 수배해제 대책위와 함께 수시로 검찰, 법무부 등 정부당국과의 면담 진행
  - 민가협의 목요일집회, 양심수석방을 시와 노래의 밤 결합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진행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결성, 그리고 수배해제추구 기자회견 가짐
  - 국민회의 및 여타 정당방문 활동을 벌임, 당직자들과 면담 진행
  - 민가협 회원들과 대통령부부의 면담 자리에 수가협 부모님(농성단 단장 오창규군 어머니)이 참가함
  - 수가협 부모님들이 종교계(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지도자들과 만나 탄원운동 진행(99년 1월 넷째주), 이러한 노력속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께서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해 건의를 드림.(99년 2월 8일)
  - 민가협과 함께 수가협, 한화협, 영남위 대책위 등이 동참하여 "조건없는 양심수석방과 대서면 추구를 위한 거리 캠페인"전개함.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서면 추구의 내용에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미복권자의 복권 등이 담겨져 있음. 99년 2월 첫째주부터 2월말까지 진행)
  - 민가협과 수가협 등이 함께 국회의원 및 각계 원로인사분들을 대상으로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서면 추구를 위한 서명운동전개 (99년 2월 첫째주, 둘째주 진행)
  - 99년 2월 10일 민가협 사면,복권신고센터에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명단을 제출하여, 민가협, 수가협 부모님들과 함께 청와대, 법무부, 국민회의에 직접 접수시킴

3)별첨자료 첨부 <내용: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종 중앙종회 특별결의문>

4) 별첨자료 첨부 <내용: '김영삼정권시절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 명단>

- 99년 2월 26일 '고압적이고 애매한 수배문제처리'에 항의하기위해 국회의원회관 법무부장관 박상천 의원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던 중 국회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남. 이 과정에서 어머니님 1분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함<sup>5)</sup>
- 99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별구속반대 등 '조건없는 전면수배해제'를 유구하며 법무부 항의방문 진행.(3월 8일은 법무부 민원실 방문을 가로막는 전경에 의해 부모님 몇 분이 찰과상을 입음), 이러한 결과로 결국 3월 12일 대책위 어른 4분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 짐.
- 99년 3월 17일 수가협 부모님들과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님이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님과 면담. 총무원장님은 다음날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해 전원 불구속수사, 기소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께 올림. 또한 총무원장님께서 재차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건의함 (99년 3월 23일)
- 99년 4월 8,9일 이틀에 걸쳐 수가협과 민가협 부모님들께서 정치수배해제를 전면거부하는 공안검찰에 항의하고자 검찰청 항의방문을 전개함.

4) 여성잡지를 비롯하여 길지 98년 9월호, 뉴스플러스, 말지 98년 10월호, 한겨레 21, 시사저널, 공주 CBS, 뉴스메이커, 불교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대학신문 30여 곳과 라디오(여성시대) 등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하여 농성단 소식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월말 MBC, KBS, SBS 등 TV 및 라디오 방송, 주요 신문을 통해 사면,복권기사와 함께 수배해제 관련기사가 연일 실리고, 2월 22일 대통령 취임1주기 사면발표기자회견과 동시에 수배해제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sup>6)</sup> 2월 18일 오후6시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에 '조계사의 설맞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고, 2월 21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 '정치수배해제되려나'라는 기사로 보도되었으며, 3월 12일 MBC 6시 30분 뉴스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구 정권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수가협 부모님들의 법무부앞 항의집회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힘으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습니다.

5) 별첨자료 첨부 <내용: 수가협 부모님 강제해산 관련 항의서>

6) 별첨자료 첨부 <내용: 관련기사 모음>

## 2. 향후 계획

1. 인권법 제정, 국가인권위 설치국면이나 국가보안법 개정 및 철폐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크게 하여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전국연합,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제 사회단체와 긴밀한 연대에 기반하여 각종 집회 등을 벌려 내는 등 수배해제의 폭넓은 저변을 마련해 수배해제의 실질적인 목적을 쟁취할 것입니다.
2. 수가협(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민가협, 한총련 학부모협의회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속에서 각종 탄원 및 항의운동과 정치인사 및 대통령 면담을 진행하는 등 수배자녀들의 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낼 것입니다.
3. 각 단위 수배·구속자 대책위를 중심으로 수배해제의 자체적이고 대중적 힘을 넓혀내는 투쟁을 적극 벌여내고, 여기에 교수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명망있는 분들을 동참시켜 정치여론을 폭넓게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4.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신문보도 및 TV방송 방영 등 대중적인 여론형성에 근간하여 정부와 사법당국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수배해제의 실질적인 여론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5. 그 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3. 조계사 농성자 명단기 및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명단

#### 조계사 농성자 명단

**오창규 (吳昌圭)** -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자(수배생활 7년째)

67년 광주 출생  
86년 전남대 심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현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김현곤 (金鉉坤)** - 수배생활 3년째

69년 부산 출생  
87년 서울대 농화학과 입학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유병문 (兪炳文)** - 수배생활 4년째

72년 경남 거제 출생  
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엽동렬 (葉東烈)** - 수배생활 3년째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건국대 농학과 입학  
97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

**김성숙 (金晟夙)** - 수배생활 3년째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학신문사 편집장  
97년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홍춘호 (洪春鎬)** - 수배생활 3년째

75년 충북 단양 출생  
94년 인천대 국문과 입학  
97년 인천대 인문대 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7) 지금 현재 조계사 농성단은 9명입니다. (8월말 홍춘호 학형, 11월중순 이창희 학형, 1월초 한유진, 김대성 학형이 결합하였으며, 1월 14일 이영수, 김재돈-서울농대 94학번, 96년 정,부학생회장-학형이 김영삼 경제청문회 자진출두 및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다 연행됨)

**이창희 (李昶熙)** - 수배생활 4년째

69년 서울 출생  
88년 단국대 경제학과 입학  
9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  
97년 한총련 정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한유진 (韓侑津)** - 수배생활 6년째

71년 경북 고령 출생  
91년 경원대 환경조각과 입학  
94년 경원대 동아리연합회장 활동 중 농민대회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

**김대성 (金大成)** - 수배생활 3년째

72년 부산 출생  
92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무역학과 입학  
97년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경상대 학생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명단(총 60명)

※99년 4월중순 현재. 누락될 수 있음

| 학 교     | 성 명   | 직 책 (년도)            | 수 배 혐 의  | 비 고      |
|---------|-------|---------------------|----------|----------|
| 동 국 대   | 유 병 문 | 총학생회장, 한총련조통위원장(96) | 국가보안법위반  |          |
|         | 김 명 희 | 동아리연합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경 회 대   | 배 정 기 | 총학생회장(95)           | 국가보안법위반  |          |
|         | 김 광 호 | 총학생회 사무국장(97)       | 집시법위반    |          |
| 함 양 대   | 송 현 석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단 국 대   | 이 창 희 | 총학생회장(91),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상 명 대   | 양 승 미 | 상명대 총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택 성 여 대 | 공 은 희 | 학생회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성 신 여 대 | 최 선 희 | 한총련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고 려 대   | 신 창 현 | 한총련 대변인(93)         | 국가보안법위반  | 고려대 조직사건 |
| 건 국 대   | 엽 동 렬 | 휴 학 생               | 국가보안법위반  |          |
|         | 최 원 석 | 학생회 간부              | 집시, 폭력위반 |          |
|         | 김 낙 환 | "                   | 집시, 폭력위반 |          |
|         | 김 영 란 | "                   | 국가보안법위반  |          |
| 서울농대    | 방 기 형 | "                   | 집시, 폭력위반 |          |
|         | 김 현 곤 |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인 천 대   | 이 경 수 | 공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 홍 춘 호 | 인문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경 원 대   | 신 은 경 | 동아리연합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 박 대 성 | 공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 전 현 욱 | 경상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 한 유 진 | 동아리연합회장(94)         | 집시, 폭력위반 |          |

| 학교           | 성명  | 직책(년도)         | 수배혐의    | 비고       |
|--------------|-----|----------------|---------|----------|
| 한국외대<br>(용인) | 박재철 |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 김대성 | 경상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강남대          | 공혁준 |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인하대          | 김종호 | 학생회간부          | 집시법위반   |          |
|              | 김동우 | "              | 국가보안법위반 |          |
| 경북대          | 이성훈 | 농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 이대동 |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 최윤진 | 총여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 권훈영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전남대          | 오창규 | 총학생회장(93)      | 국가보안법위반 | 수배생활 7년째 |
|              | 진재영 | 총학생회장(94)      | 국가보안법위반 |          |
|              | 김성숙 |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조선대          | 최태진 | 총학생회장(96)      | 국가보안법위반 |          |
|              | 윤민호 | 부총학생회장(96)     | 국가보안법위반 |          |
|              | 서일권 | 학생회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목포대          | 유영업 | 총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서강전문대        | 위경이 | 학생회 간부         |         | 집시법위반    |
| 동신대          | 송성주 | 총학생회장(93)      | 국가보안법위반 |          |
|              | 고재한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 장귀영 | "              | 국가보안법위반 |          |
|              | 김은정 | 국문과 학생회장       | 국가보안법위반 |          |
| 동아대          | 정재원 | 경영대 학생회장(93)   | 국가보안법위반 |          |
|              | 최현석 | 농대 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울산대          | 손해연 | 총여학생회장(97)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목포전문대        | 송승훈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순천대          | 김용환 | 법대 학생회장(96)    | 국가보안법위반 | 한총련불탈퇴   |
| 인제대          | 윤용웅 |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동명전문대        | 이장인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부산여전         | 이현주 | "              | 국가보안법위반 |          |
| 창원대          | 김민임 | 한총련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경상대          | 윤동영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한남대          | 노형일 | 총학생회장          | 국가보안법위반 |          |
| 홍남대          | 이재춘 | 학생회 간부         | 국가보안법위반 |          |
|              | 신동훈 | 범민련 관련         | 국가보안법위반 | 대학생이 아님  |

\* 국회의원회에서 취합된 4명의 이름: 양관수, 박경균, 김승호, 박매령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지난 시절 저희 학생들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 그리고 국민의 주인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6공으로 표현되는 군사독재정권시절, 목숨까지 바치면서 투쟁하며 '군정종식'이라는 역사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맞서 적극적인 비판과 저항으로 국민적 권리를 지키고자 투쟁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힘이 해방이후 첫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국적 학생들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이 필연적이었고, 이로 인해 현재 정치수배자라는 이름으로 청춘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수배자들의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구속자들의 그것보다 몇 곱절 더합니다.

민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된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법 당국은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 법적용의 형평성을 들면서 수배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수나 정치수배 등 정치적 문제로 파생된 사안에 대한 사면이란 전통적으로 법적 타결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정치적 결단과 해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 해제는

**첫째, 인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항상 "인권은 민주주의의 지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권문제가 차선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정치수배자들은 인신의 자유가 상당히 박탈된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된 양심수와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의 '수배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정치수배자들의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구속자들의 그것보다 몇 곱절 더합니다.

따라서, 정치수배자들도 양심수문제의 범주에서 처리되고, 마땅히 '양심수 특별사면'처럼 정치수배 해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사법정의에 기초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당선되시자마자 국민화합차원에서 광주시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를 과감히 특사조치로 석방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거대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책임자와 정치인들은 사면, 복권해 주면서,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 대해 아직도 실정법 적용의 논리를 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법 정의를 세우고, 진정한 국민화합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결단하여 하루빨리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 대석방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를 국민의 현명한 기대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합니다!

**셋째 올바른 과거청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잃어버린 김영삼정권도 과거청산차원에서 취임한 93년 가을에 당시 310명의 노태우정권하 정치수배자들에게 '불구속수사와 기소유예'방침이라는 정치적 타격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 개혁적이어야 할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권이 했던 수준의 과거청산사업에 비해 그 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현 정부의 '점진적 인권문제해결방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보다 못한, 특히 3당야합으로 탄생한 문민정권보다도 못한 과거청산을 한다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문구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1. 자진출두 기간을 정하고
  2. 기간 내에 출두하는 수배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3. 출두자 전원에게 기소유예 방침을 내린다.
  4. 자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 소회를 밝힌다.
- "장기간의 수배, 도피 생활은 일상에 대한 갈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수배해제가 된다면 그리는 가족에게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학교생활로 돌아가 뜻 다한 학업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올바른 법이라면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 이러한 저희의 소회는 순수한 양심의 표현입니다. 저희들의 양심의 표현이 준법서약서를 쓴 것처럼 효도 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저희는 민주시민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껏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도 '김대중님의 대통령 당선'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희는 해방이후 여야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진실로 과거청산에 임해 과거에 발생한 정치적 희생양의 하나인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또한 양심수석방, 나아가 넓은 악법인 '국가보안법'까지 국민회의의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반드시 철폐하였으면 합니다.

저희는 "조국과 민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당대에서 평가받지 못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반인권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시고 인권대통령을 지향하시는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별첨자료 1>**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호 / 소 / 문**

정치적 견제세력에 대한 초법적인 인권탄압이 난무하는 사회는 정치 발전도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없으며 부정부패와 경제파탄으로 인한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로 확인되었습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박해를 받은 모든 양심세력들에 대해 수배해제와 전원석방이라는 응당한 선물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제 2의 건국을 이루어 내는 지름길이자 국민대화합으로 경제회생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8.15 특별사면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헌정파괴와 경제 파탄의 주범들에게는 사면에 복권까지 전폭적으로 단행한 반면 그들에 저항하다 수배 받고 구속된 양심수들은 온갖 조건을 부쳐 배제 선별하고 그나마 선별된 사람들도 가석방, 형 집행 정지, 감형만을 단행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을 김대중 정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8.15 특별사면의 교훈입니다. 이제 진정한 민주 발전과 인권신장을 통해 경제회생의 정치적 원동력을 형성하는 일에 각계의 뜻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백만 청년 학생 여러분.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뛰어 놀던 친구,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일신의 안락보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배해제 전원석방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에 모두 나섭시다. 각 학교마다 후원회, 대책위등을 꾸려 후원주점, 모금, 선전활동,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벌여 학우들의 대중적 힘으로 수배해제, 구속자 전원석방을 쟁취합시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여론 선도층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다 감옥으로 끌려가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탄원해 주십시오.

수배자, 양심수들의 가족과 부모들은 한탄하고 눈물 흘리기 전에 자식을 믿고 아들,딸과 손잡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합시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사회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 청와대, 검찰, 법무부등 모든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청원하고 항의 합시다. 자식을 믿고 함께 싸우는 것이 부모님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수배자와 양심수들을 적극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사회적 발언력을 높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참다운 종교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양심수, 애국자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수배해제, 양심수석방의 중재자가 되어주십시오.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과거 수배와 감옥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가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응당한 자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들은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속에서도 수배자들과 양심수들이 우리들의 동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집회와 행사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을 적극 알려내고 요구합니다.

모든 민주적인 정치인들, 양심적인 종교계 지도자들, 각계 각층의 민주단체, 백만 청년 학생들은 역사의 주인, 민주발전과 경제회생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투쟁에 열과 성의를 다해 나섭시다.

1998년 8월 22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창규

## <별첨자료 2>

### 새정치국민회의, 법무부와 대화 경과 보고

본 농성단은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의 차원에서 구 정권하의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총 64명)들의 수배조치를 지혜롭게 해결해보고자 명망 있는 사회인사들로 구성된 '수배해제 대책위8)'를 구성하여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관계자(한화갑, 정균환,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박영관 검찰3과장 등)와 수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유가협(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이 준비한 자료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수배자 부모님들의 친필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유시춘,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와 수 차례의 논의를 진행
-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 한화갑 원내총무, 검찰청장 면담(98년 8월 12일)
- 법무부를 방문하여 박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 대통령께 드리는 수배자 부모님 탄원서 제출
- 대책위 분들이 박상천 법무부장관, 이기문(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원을 면담하여 법무부 입장을 확인(98년 9월 18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이기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장, 담당 공안 검사의 만남을 통해 우리 농성자들에게 통보된 법무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진출두 하여 수사를 받을 것
- 2) 반성을 전제로 하여 한총련을 탈퇴하거나 수배해제 이후 한총련 일에 개입하지 말 것
- 3) 국법질서를 준수할 것
- 4) 2),3)의 내용을 형식에 상관없이 표명할 것
- 5) 위의 사람 중에 죄목에 따라 선별처리 한다. 선별처리 기준은 한총련 이외의 조직사건 관련자, 이적표현물 배포 관여자, 폭력시위 관련자, 그러나 선별처리 기준은 유동적으로 협의 할 수 있다.

- 대책위, 수가협('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약칭) 분들이 한화갑(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 이기문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화갑 원내총무는 수배해제의 문제를 당내에서 토론에 부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주례 보고하겠다고 함(98년 10월 16일)

8) 대책위원: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의장), 함세웅 신부님(천주교인권위원회), 홍근수 목사님(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님(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이덕우 변호사님  
대책위 집행위원: 오영식(전대협 2기 의장, 전대협 동우회 회장), 김재용(한총련 1기 의장)



- 유가협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본 농성단의 활동과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고 수배해제를 촉구했으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배석했던 이강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에 대한 답신을 주겠다고 함(98년 10월 20일)

- 진형구公安부장과公安기획 3과장과 진관스님, 김재용(한총련1기 의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진행(98년 11월 27일)

**公安부의 입장**

'법의 원칙, 법적용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의 법적 기준인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인 형태보다도 개인적으로 출두하여 '준법의지를 밝히는 등 수사에 성의를 보인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함.

☛ **농성단의 입장 :** 公安부 입장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자체 판단함

- 12월 둘째주 수차례에 걸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의 국민회의 방문시의 약속사항인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 농성단 방문 (98년 12월 18일) 농성단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짐. 국민회의의 종전입장 전달, 하지만公安부와 직접 만나는 토론자리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함.

- 12월 말公安부와의 직접대화추진이 결렬.公安부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에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과의 직접대화를 거절한다고 전함.

- 99년 1월 13일 국민회의 제 1정책조정위원장 남궁진 의원과 수가협, 민가협 대표님들과 면담 진행. 당정협의에서 적극 수배해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함.

- 1월 23일 대통령과 민가협 오찬자리에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 단장의 어머니가 참석.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건의드림. 김대중 대통령의 '3.1절 사면시사'발언 언론에 공개됨.

- 1월 24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방문, 1월 26일 국민회의 인권국장 방문(현재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의 명단의 파악해감)

- 1월 27일 국민회의가 주례보고자리에서 대통령에게 3.1절 대사면 건의함.(양심수와 한총련 관련 수배자의 사면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를 포함) 김대중 대통령께서 적극 수용의사 표명.

- 1월 28일 법무부실무자인 3과장 박영관 부장검사가 오종렬 아버지, 오영식, 김재용 집행위원

과의 면담을 이유없이 결렬시킴. (이후 전화로 조건 없는 자수를 이야기함. 서로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면담하지 않겠다고 함)

- 1월 29일 민가협, 수가협, 한학협 부모님들의 국민회의 방문.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만남. (조건없는 양심수 대사면에 대해 재촉구, 준법서약서제도에 대해 항의함)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여 법무부와의 조율이 남아있다고 함, 이날 이기문 인권위원장은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해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함. 국민회의 인권국장은 지금의 수배해제란 '수배자가 검찰청에 가서 간단한 절차를 치루고 기소유예를 받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며, 간단한 수사 등의 절차진행도중 몇 사람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수배해제가 아니다"라고 함.(하지만, 국민회의의 수배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 안됨)

- 따라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으로 저희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찰 운영을 포함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박상천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 수가협 부모님들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서관을 통해 면담 주선을 약속받음.(99년 2월 2일)

- 민가협 권오현의장님과 수가협 부모님들이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과 만남 (구 정권하의 수배자에 대해 조건없이 전원 불구속 기속유예로 수배조치를 해제시키겠다고 약속 받음. 당 간부회의를 거쳐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3.1절 특별사면과 수배해제 조치'에 대한 최종주례보고를 통해 법무부에 이야기하겠다고 함. 법무부장관과의 만남도 최대한 주선하겠다고 함.(99년 2월 3일)

- 수가협 부모님들이 2월 9일 당정회의 전에 국민회의 정책위원장 김원길 의원사무실, 남궁진 의원사무실, 이기문 의원사무실, 자민련 정책위원장 차수명 의원사무실, 김종학 의원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협조를 구함. (99년 2월 8일)

- 대통령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의 면담자리에서 김승훈 신부님과 함세웅 신부님(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대책위원)께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관한 서류 및 입장을 건의함. (99년 2월 8일)

- 2월 9일 당정회의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2월 11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해 '조건없는 전면 수배해제'로 대통령께 주례보고로 올림. 이 날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재하의 청와대, 법무부, 인권 및사회단체의 간담회에 수가협 공동대표 장재욱 어머니가 참가한 자리에서 이기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함.

- 2월 20일 법무부 검찰3과장 박영관 검사와 수가협 부모님들이 면담을 진행함. 이속에서 박영관 검사로부터 2월 19일 법무부장관 업무보고자리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22일 취임 1주기 사면·복권 기자회견에 수배문제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음. 또한 구 정권 정치수배자들에 대해서 수배해제조건으로 준법서약서나 한총련 탈퇴서, 반성문 등의 형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함. 하지만 간단한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하여 계속적인 선별처리입장을 확인함. 부모님들은 이에 대해 전원에게 수배해제 해줄 것을 요청함.

- 2월 22일 법무부 장관이 수배문제를 포함한 3.1절 사면·복권 기자회견을 발표함.

**“새정부 출범전 공안사건으로 지명수배중인 자들에 대한 방침회를 밝히겠음.**

- 정부는 수배중인 공안사범들이 자수하여 앞으로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임

- 2월 23일 조계사 농성단 비상대책위원이신 민가협 권오현 의장님과 박영관 검찰 3과장이 전화로 통화한 결과, “박영관 검사는 자수 등의 표현은 자기네들의 표현이니, 마음에 두지 말고 상관없이 검찰에 올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선별처리입장은 완강히 이야기 했음.”, 또한 이날 오후 조계사 농성단 대책위원이신 진관스님께서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한화갑총무가 당론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어서 아무도 구속되지 않을테니, 마음놓고 자진출두할 것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책임질 것이냐고 묻자,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 또, 이 날 조계사내 수가협 귀중으로 법무부 공문이 음.

“법무부와 검찰은 수배중인 학생들이 자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으므로 조속히 자수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임.

공문은 박영관 검찰3과장이 보낸 것임. 이에 수가협 부모님들이 국민의 이기문 인권위원장을 만나 내용의 진의를 확인하자, 이기문 인권위원장은 과격적인 상황으로 수배해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검찰과 통화를 나눈 뒤 몇 사람의 구속은 각오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구속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나서서 집행유예로 되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 2월 26일 수가협 부모님들이 실무자들의 애매하고, 부분적인 수배해제발언과 형사들의 '이번에 수배해제는 안됐다'라는 발언 등에 대해 항의하고자 국회의원회관 법무부 장관 박상천 의원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한석만 비서관으로 “애초 수배해제는 당론이 아니었다. 여론플레이 용이었다”라는 해괴한 발언을 듣게 됨. 이에 강력히 장시간 항의하자 국회경비대 50~60여명에

의해 강제로 건물밖으로 쫓겨남. 이 과정에서 어머니님 1분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심.

- 2월 27일 국민회의와 국회 사무처로 수가협 부모님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이 강제해산에 대해 항의하러 가심. 한화갑 원내총무 등 책임있는 당직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으려하자 한화갑 원내총무 보좌관으로부터 3월 2일에 최대한 면담을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상천 의원사무실 한석만 비서관으로부터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치료비 전액을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듣고 음. (며칠 후 치료비를 받음. 국회 사무처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함)

- 또, 이날 수가협 부모님 3분께서 법무부로 가셔서 검찰 3과장 대리인 이영만 검사를 만고 음. (박영관 검사는 휴가 중임) 부모님들께서 2월 23일 수가협으로 날라온 공문에 대한 진의를 공식적으로 묻자, 이영만 검사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대신 몇 사람에 대한 구속 등 선별처리 입장을 여전히 이야기함.

- 3월 2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문 김승훈 신부님과 수배자 대책위원이신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법무부에 찾아가서 신승남 검찰국장을 만남. 검찰국장은 “국민회의의 당론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은 정치인과 다르다며, 정치적 결정과 다르게 다시 한총련 탈퇴서 등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방침이나 몇 명에 대한 기소와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함.

- 3월 6일 오전 10시 수가협 공동대표님들과 민가협 권오현 공동의장이 국민회의 원내총무 한화갑 의원을 만남. 한화갑 원내총무는 검찰의 반발로 인하여 한총련 핵심주모자 등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함. 이에 부모님들이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조건없는 전면수배해제가 국민회의 당론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지 않는가”라고 항의하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주례보고때 대통령께 전달하고, 다시 노력해보겠다고 이야기함.

- 3월 12일 전국연합 의장님 겸 민권공대위 상임대표이신 홍근수 목사님과 민주개혁국민연합 이창복 공동대표님, 민가협 상임의장 김정숙 어머니, 진관스님이 과천 종합청사앞에서 열린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를 위한 법무부앞 항의집회'도중 법무부 장관실에서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함. 박상천 장관은 자신도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하여 사회복귀시키라”는 대통령과 같은 의지라며, 수구세력의 반발과 검찰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전원 불구속기소유예'라고 천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하지만, '자수'라는 고압적 표현에 대해 '자진출두'로 정정하겠다고 하였으며, 최대한 불구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겠다고 이야기함. 이 자리에는 박영관 검찰 3과장이 동석했으며, 장관과의 면담이후 검찰 3과장은 자신의 방에서 어르신들에게 “우리도 이 문제를 수배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함.

- 3월 16일 수배자 대책위원이신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박영관 검찰 3과장과 전화통화를 나눔. 검찰3과장은 “분위기 좋으니 지금 빨리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수배자들이 해방 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해서 조속히 해결하라고 이야기 함.
- 3월 31일 긍정적 분위기를 고려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의 자진출두를 위해 꾸려진 민변소속의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변호인단의 한 분이신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서울지역 수배자의 자진출두문제로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신태영 부장검사를 만남.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상부로부터 수배해제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불구속으로 선처할 것이니, 출두하기 전에 관련사건과 현재 수배생활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함.
- 4월 1일 수가협 부모님들께서 수배해제에 대한 권고를 내리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자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기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감. 여기서 부모님들과 검찰 3과장 박영관 부장검사와 면담함. 3과장은 “누가 지시를 안내렸다고 하나며, 도리어 화를 냈으며, 자진 출두시 전원 불구속수사를 하며, 수사자료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
- 4월 3일 진관스님, 대책위 집행위원 오영식 선배님과 수가협 어머님께서 검찰청으로 문의하러 감. 안영욱 공안기획관을 만났고, 최진안 공안기획 3과장을 대화 중에 잠시 만났으나, 이들의 이야기는 “최대한 선처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있었고, 내부 방침으로 일선까지 전달되었다. 하지만, 사안의 형평성으로 인해 자진출두해도 몇 명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선별구속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함.
- 4월 8일 수가협 부모님들께서 정치수배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대검찰청 공안부에 항의하고, 검찰총장을 만나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함, 여기서 김상운 공안기획 3계장을 만났음. 공안기획 3계장은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수배해제에 대해서 “대통령 특사나 국가보안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또한 최대한 관용은 베풀겠으나 일단 구속수사하고, 그들 중에서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겠다는 선구속 후 선별처리 입장을 밝힘.
- 4월 9일 수가협과 민가협 부모님들이 재차 검찰청을 항의방문하여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촉구함. 이속에서 최진안 공안기획 3과장을 만나서, “일단 조사해봐야 한다. 밝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며 명확히 수배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음.

### <별첨자료 3>

#### 당면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 건의안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해 살아온 모든 이들의 인권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당면한 인권 현안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은 ‘국민의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건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준법서약서를 철회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주시길 바랍니다.
3.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를 비롯한 모든 정치수배자의 해제를 촉구합니다.
4. 청년 양심수의 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출소한 양심수에 대한 보안관찰법을 철폐해 주시길 바랍니다.
6.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인권탄압의 본질적, 법적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개혁 국민연합 김상근, 이창복 공동대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정숙 상임대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홍근수 상임대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연합 권오현 공동의장**  
**통일시대국민회의 함세웅 상임대표/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문 김승훈 신부님**  
**불교 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오종렬 공동대표**

## <별첨자료 4>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에 대한 관련기사 모음

#### 1) "수배 풀린다면 3만베락도"

12월 10일자 시사저널 44쪽에 실린 저희 관련기사입니다. 사진도 나왔습니다.

(사진설명 : 3천배를 마치고-수배해제를 염원하며 조계사에서 매일 '108배 용맹정진'을 해온 농성자들)

#### <YS 시절 정치 수배자들 조계사에서 천막농성... "93년처럼 정치적 결단을">

서울 조계사에 가면 대웅전 처마 아래 천막들이 여럿 들어서 있다. 과거에 명동성당에 진을 쳤던 '사회적 약자'들이 요즘은 더러 대한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를 찾기 때문에 벌어진 '낮선 풍경'이다.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라는 긴 이름의 농성단이 진을 치고 있는 천막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천막에서 기거하는 농성자는 9명. 모두 학생시절의 활동과 관련해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째 수배 중인 휴학생·제적생들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기소 중지자라는 점이다. 여학생 1명을 빼고는 죄다 중처럼 머리를 짝짝 밀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이들은 이 안에서 김영삼 시절에 수배된 67명(자체 집계)을 '대표'해 백일 넘게 농성 투쟁하고 있다.

이들이 조계사에 입사(入寺)한 때는 지난 8월 9일. 양심수에 대한 8·15특사가 예상되는 때여서 '예비 양심수'에 해당하는 정치 수배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급조한 '기획 농성'이었다. 그런데 조계사에서 농성 천막을 세운 지 어느덧 1백 10일이 넘었다. "50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에서 농성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농성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오창규씨(93년 전남대 학생회장·전남대 대학원 3학기)

#### <농성 108일째 맞아 수배 해제 염원 3천배>

그래서 이들은 오랜 농성으로 인한 고단함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농성단 전원이 날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108배 용맹 정진하고 △6시에 대웅전 마당을 청소하고 △6시 20분에 국선도를 수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왔다. 9명 중에서 농성 중에 시집을 낸 유병문씨(동국대 불교학과 92년 입학)를 빼고는 모두 불자가 아니지만, 이들이 수배해제를 염원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행해 온 108배 용맹 정진은 조계사 스님들과 불자들 사이에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농성 기간에 수배자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치권과 교섭해 '수배해제'를 얻어낼 길을 모색하는 등 여러 모로 힘써 왔다. 그럼에도 수배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성 108일째가 되는 11월 24일 대웅전 처마 밑에서 수배 해제를 염원하는 3천배 의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대웅전 예불에 참석한 뒤 5시 30분부터 의식을 시작했다. 이들은 5백배를 할 때마다 대웅전을 돌며 감긴 다리를 풀었고 오후 3시쯤에 3천배를 마쳤다. 땀으로 흠뻑 젖은 이들의 표정에는 오랜 수배 생활로 인한 고단함을 털어 버리는 후련함과 반성의 빛도 묻어 있었다.

'법대로'한다면야 3천배 아닌 3만배를 하더라도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배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93년 경험이 그것이다. 93년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세대에서 5·6공 정치 수배자 해제 요구 농성이 벌어졌고, 당국은 수배자 3백10여명 가운데 3백8명을 기소 유예 및 불구속 기소하는 형식으로 수배자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공안 사건 관련 수배자 문제의 최대 걸림돌은 한총련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공안사범(공안 관련 사범 포함) 수배자 현황'(96년~98년 9월말 현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백82명 △학원 사범 23명 △노동 관련 사범 23명 △기타 2명 등 수배자는 총 2백30이다. 보안법 위반 사범이 전체 수배자의 8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총련 관련 사범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법무부가 밝힌 입장은 △자진출두 △반성을 전제로 한 한총련 탈퇴 수배해제 이후 한총련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죄목에 따라 선별처리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농성단은 93년처럼 전원 수배 해제 및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수배자가족협의회 역시 같은 날부터 국회의 당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실업자가 양산되어 가뜩이나 춥고 배고픈 겨울에 농성 천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당 기자)

#### 2) 출처: 조선일보, [여] 구정권 정척-노동-시국사범 대대적 사면복권추진

- 1월 28일자

#### <3.1절특사 청와대 건의...미복권-선거사범도 대상>

국민회의는 27일 정부가 단행할 3·1절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구정권하의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와 정치적 수배자 등 정치사범, 노동사범, 민주화 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 사면-복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복권자와 선거사범 등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3·1절 사면-복권 6원칙을 마련, 28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건의할 사면 복권 대상에는 30년 이상 장기 복역한 남파-월북간첩 등 17명, 노동사범 29명, <구정권때 수배된 61명>, 구 정권때 구속된 국가보안법-집시법 복역자 2백13명 등 3백20명이 포함된다. 또, 미복권자의 복권, 선거사범, 국민대화합 차원의 정치적 특사까지 포함할 경우, 사면 복권건의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없이, 한총련 관련 시국사범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준법서약을 전제로 한 전면적 사면 복권을 건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노동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구 정권하의 수감자뿐 아니라 현정부 출범 이후 구속자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단행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인권위원회 등은 현재 사면-복권 청와대 건의안을 성안중인 데 ▲황병태 전 의원 등 한보-기아사태 관련자 ▲김병오 전 의원 등 선거 사범 ▲12·12 관련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 등 한총련 관련 수배자-구속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도 건의하기로 했다.

당 건의안에는 그러나 김현철씨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김민배기자·baibai@chosun.com)

#### 3) 출처: 문화일보, [8, 812명사면·복권] 정부발표 시국사범 70여명 수배해제

- 2월 22일자 1면 머리기사

#### <임수경-서경원-황석영-박지만씨 등 포함, 25일 단행... 김현철씨 확정판결 안돼 제외>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과 3·1절 80주년을 맞아 8천8백12명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면·복권안을 공식발표했다. 이날 특사에 따라 오는 25일 모두 1천5백8명이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일제히 풀려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사면·복권에서 지난 58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70)씨 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초장기수 17명을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석방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고령이어서 재범 우려가 없는데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복에 두고온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수경씨, 임종석 전전대협 의장, 서경원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씨 등 밀입북사건과 관련된 국가

보안법 위반사범들도 복권돼 공민권을 되찾았다. 또 사로맹사건 관련자인 박기평(박노해) 백태웅씨들도 복권됐다. 그러나 이미 자고한 문익환 목사는 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특히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지난해 말 풀려난 생계형 사범 2천6백93명에 대해서는 벌금 잔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의 시국사범 70여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해제하고 이들이 자수한 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이번 특사에서는 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공주교도소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외아들 지만씨가 형선고실효와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계류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중호 기자)

## <별첨자료 5>

###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실신시키고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힌 새정치 국민회의는 즉각 사과하라!!!

자식들의 정치수배를 요구하며 국회 박상천의원실에서 항의농성하던 어머니 15 분이 강제 해산되었다. 늙으신 어머니들 몸에는 곳곳에 상처가 남았고 장희수 어머니는 실신해 여의도 성신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겨레 신문 2월 27일자 23면)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203일째 9명 수배자들이 농성을 벌여왔다. 기나긴 투쟁으로 청와대와 국민회의도 수배해제를 약속하였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취임 1주기 특별사면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런데 2월 22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사면대상자 발표에서 수배해제에 대해 애매하게 언급하여 부모님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애매한 그 발표에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부모들은 경원대 신은경, 강남대 공혁준 학생의 집에 보안수사대 형사가 찾아와 '수배해제가 안되었으니 빨리 자수시키라' 협박해 또 한번 절망을 빠졌다. 부모님들은 수배해제를 약속한 국민회의 이기문 인권위원장을 만나러 갔으나 인권위원장마저 법무부와 협의후 선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다.

이에 부모님들이 2월 26일 11시 30분경 15명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법무부 장관 박상천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갔다. 선별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63명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책임있는 인사와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상천 의원 보좌관은 이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문을 잠근 채 부모님들을 빨리 내보내려고만 했다. 항의 농성은 계속되었고 저녁 6시경 경비대 50여명을 동원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강제로 회관밖으로 내쫓았다.

이 과정에서 장희숙(김현곤의 모) 어머니는 실신하여 응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여러 어머니들이 타박상과 찰과상을 당했다.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을 경비대들이 끌어당기고 밀쳐내며 들어내다시피 의원회관 밖으로 쫓아냈다. 의원회관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와 눈물로 뒤범벅되어 흡사 군사독재 시절 백골단의 만행을 연상케 했다.

뿐만아니라 실신하여 병원으로 옮겨진 장희숙 어머니를 응급실에 방치하고 의원비서관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는 어머니를 밤새 응급실에 방치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계속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방치하던 새벽에야 뇌파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입원수속을 했던 의원보좌관이 없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 인권 정부를 외치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집권여당인 국민회의 당직자가 직접 지휘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실신시키고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힌 이 사건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폭거이다.

이에 우리 조계사 농성단은 새정치 국민회의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책임있는 당직자가 이에 대해 부모님께 사과하라!!!
2. 응급실에 방치된 장희숙 어머니를 책임있게 치료케하고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
3. 책임있는 당직자가 전원에 대한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약속하고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1999년 2월 27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별첨자료 6>

### 구정권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기자회견문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양심수 특별사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300여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고 시국 관련 수배자가 그대로 거리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배자들이 '자수하여 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면 불구속 수사 등 뱀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3일 민가협과 김대중 대통령의 면담, 1월 27일 새 정치 국민회의 사면건의안에서 수배문제가 언급되어 이번엔 풀릴 줄로 알았는데 참으로 예매하고 실망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정치수배해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고, 집권 여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와 검찰만이, 정치수배자를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 양산된 양심수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취급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배해제를 요구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수배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만 208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의지 삼아 농성하는 동안 계절이 세 번 바뀌고 두 번의 명절을 이곳 조계사에서 보냈습니다. 나라를 망친 김영삼 전직 대통령은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저항한 학생들만 뱀을 들어대려 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88년 노태우 정권도, 93년 김영삼 정권도 구정권시절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한 바 있습니다. 살인자며 부정축재자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도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었는데, 양심세력이 아직까지 뱀박판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권의 버리와 독단에 항거하다 정치수배자들이 양산되었는데, 해방 이후 첫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들을 더욱 뱀박판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아까운 청춘을 보내는 것은 어른으로서 지켜보기 딱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한 청년들이 하루 빨리 수배가 풀려 못다한 학업에 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회에 봉사하고자하는 소박한 뜻을 실현해나가는 참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법당국은 의로운 청년들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자수해도 선별구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함께 정치수배해제를 열망해 온 사람들인데, 누구는 부모 곁으로 가고 누구는 감옥으로 간다면 이들 이겨 온전한 수배해제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수배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가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하겠다'는 확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70여명의 수배자가 부모들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케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법무부 합의방문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부당한 수배가 풀릴 때까지 결성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1999년 3월 4일 (정치수배해제 농성 208일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민주개혁국민연합 김상근 대표/ 통일시대국민회의 함세웅 공동대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이창복 상임의장/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홍근수 상임공동대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김정숙 상임의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권오현 의장/ 불교인권위원회 전관 위원장/  
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배은심 회장/ 전국실천불교승가회 청화 의장

## <별첨자료 7>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결의문

귀의삼보하옵고,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의 부정과 부패, 독선과 독단이 몰아온 경제파탄과 IMF 한파로 인해 온 국민이 좌절과 절망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나라사정 속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된 '국민의 정부'에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국민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를 극복하고자 강력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하며 고통을 분담했으며, 최악의 경제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역대정권과는 다른 '국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으며, 온 국민이 하나같이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1년의 과정은 기대에 못 미치는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회생'과 '민주발전'을 한 수레의 두 바퀴처럼 움직여가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충실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화합' 차원이란 미명하에 사회적책임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에서 풀려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남아있고 수배자들은 생사를 모른 채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지금 조계사에는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에 이르는 '창살없는 감옥살이'을 한 수배자들이 모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9일 조계사에서 천막생활을 시작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취임 1주년 사면·복권 발표시에 대다수 언론에서는 마치 구 정권 하의 모든 정치수배가 해제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정작 법무부와 일선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자 국민회의의 당론인 수배해제조치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수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한 사항이었음에도 법무부, 검찰이 왜 종전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전원이 조건 없이 수배해제되어 가족의 품으로, 학교로 되돌아가 건강한 사회의 인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대화합과 중생사랑의 대자대비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으리라 믿으며 정치수배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대웅전 앞에서 108배를 올리는 이들의 애절한 기도가 부처님 품에서 이뤄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들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단행해주시시오.
2.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시오.

대통령과 법무부 및 검찰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 방침을 명확히 해주시면, 이들은 언제라도 각계 어르신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자진 출두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항상 칭찬하셨듯이,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진정 '국민의 정부' 하를 아래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야 합니다. 그 시작은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한 양심적인 인사에 대한 구속, 수배의 해제로부

|        |     |      |
|--------|-----|------|
| 인권 자료실 |     |      |
| 등록일    | 부기호 | 자료번호 |
|        | B8  | 165  |

< 1 2 3 4 5 6 7 8 9 10 >

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초기에도 300여명에 이르는 정치수배자들의 수배를 해제하였듯이, 국민의 정부는 '희망과 화합'이라는 국정운영 정신에 맞게 더욱 큰 폭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치수배자의 수배조치를 해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권후진국의 명예를 벗고 인간존중의 시대를 맞이하는 길일 것입니다.

"정의와 이웃을 위해 살아간 자는 당대에서 평가받지 못해도, 역사에서 옳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국정 총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믿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희망찬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43(1999)년 3월 31일

대한 불교 조계종 중앙 종회 일동



불차항잔이  
전후자  
익었다.  
그도  
마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송년오찬 및 다과회



- 일 시 : 12월 31일(목) 오전 11시 오후 1시
- 장 소 : 조계사 농성단 전막
- 주 칙 : 정치수배해제 농성단 / 양근모 농성단

#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 드립니다.

## 1.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보고

4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8월 9일 조계사에 전국의 시국관련 수배자들이 조계사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농성 145일째(12월 31일 현재)를 맞고 있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의 간략한 활동보고입니다.

1)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피에르사네), 스웨덴 집권당인 사민당 산하 청년위원회 의장(앤더스 린드버그)이 방한기간에 본 농성단을 찾아 정치수배해제·양심수석방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자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의 명망 있는 사회인사들이 탄원서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현재 '정치수배해제·양심수전원석방·양심수군대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4만여 명의 시민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인권신장'과 '부정과 독단의 구시대적 정치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제 단체와 연대하여 각종 집회를 비롯한 제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국연합,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노동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8월 22일)

- 사회단체 인사와 시민학생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9월 13일)

- 전교조,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10월 16일)

- '의문사 진상규명, 열사 명예회복,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를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진행(11월 21일)

- 양심수문제(김영삼정권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준법서약서 철폐)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무기한 공동단식 진행(12월 5일부터 12월 12일)



- 대통령면담 대표단(김상근목사, 함세웅신부, 이창복의장, 오종렬의장, 홍근수목사, 권오현의장) 사전 모임을 가짐(12월 5일)

이 자리에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봄 (제반의 인권문제라 함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청년양심수 군문제 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대통령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 단체의 입장을 모아 면담건의서를 제출

-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선언운동 진행 (12월 9일자 한겨레 신문 하단광고로 나감)

3) 본 농성단과 함께 전국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수배해제를 위한 정당, 언론사 면담을 진행 하는 등 수배자녀들(구정권하 수배자 총 65명)의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위해서 제반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08배 용맹정진 100일동안 진행

- 정치수배해제를 염원하는 3000배(11월 24일)

- 상시적인 수배자 가족모임을 진행하여 수배해제를 위한 제 방안을 모색

- 대책위와 함께 정부당국과의 면담 진행

- 민가협 목요집회 결합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진행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결성, 결성과 함께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 가짐

4) 여성잡지를 비롯하여 길지 9월호, 뉴스플러스, 말지 10월호, 한겨레 21, 시사저널, 광주 CBS, 불교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대학신문 30여 곳과 라디오(여성시대) 등 공중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농성단 소식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실림

## 2. 향후 계획과 흐름

내년초 정부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계획에 발맞추어 민중생존권사수와 인권신장을 위하여 투쟁하는 제 사회단체와 긴밀한 연대속에서 인권요구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통령면담, 문화제, 집회 등을 적극 벌여내어 수배해제의 폭넓은 저변을 마련해 마침내는 수배해제의 실질적인 목적을 쟁취할 것입니다.

-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무기한 공동단식(수배해제농성단, 양군모 농성단, 명동성당 농성단, 옥중투쟁위원회)을 총화하고 이후 공동투쟁 모색

수가협(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제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속에서 각종 집회와 탄원, 서명 운동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수배자녀들의 실질적인 수배해제조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낼 것입니다.

-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명망있는 사회단체 인사의 청원운동 진행
- 수배해제의 지체로운 방안모색과 특별사면 촉구를 위한 대정부 투쟁

각 단위 수배·구속자 대책위를 중심으로 수배해제와 학생운동의 합법지평을 넓혀내는 투쟁을 적극 벌여내고 여기에 교수님을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법조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명망있는 분들을 동참시켜 정치여론을 폭넓게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제, 집회 등을 통한 대중적인 여론에 근간하여 명망있는 사회단체인사와 학생운동 선배들로 구성된 대화창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법당국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수배해제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 대통령 면담대표단(김상근목사, 함세웅신부, 이창복의장, 오종렬의장, 홍근수목사, 권오현의장)을 구성하여 대통령 면담을 추진
- 면담건의서 제출(12월 8일)

## 1) 12월말에서 1월 중순까지(투쟁대오 정비기)

- 농성단 재정비,
- 인권단체들과 2월말까지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 대통령 면담을 성사시킨다.
- 국회의원 청원 운동 시작
- 한총련에 대한 구속, 수배, 탈퇴공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추적 60분'을 비롯한 TV방송에 방영될수 있도록 준비한다.
- 이덕우 변호사님과 함께 불법적인 한총련 탄압 책임자를 법원에 고소 고발

## 2) 1월 중순에서 1월말까지(신년 인권투쟁 진출기)

- 1월14일 집회(가칭: 박종철 열사 정신계승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99 신년 인권 대회)를 기점으로 인권단체들의 통일적인 투쟁 시작